“잊지 않을게요”…20년째 이어진 5·18묘지 ‘리본 물결’

유공자유족회, 2006년 최초운영
5·18주간 추모글 일 400개 달려
세대·국경 초월한 참배객 ‘위로’
“오월 정신 기억하고 이어갈 것”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닷새 앞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의 글 남기고, 추모 리본 달아주세요’ 행사 천막을 찾은 ‘오월어머니’들이 추모 문구를 남기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오월 영령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닷새 앞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는 올해도 어김없이 형형색색의 추모 리본으로 가득했다. 봄바람에 나부끼는 리본 하나하나에는 참배객들의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마음이 담겼다.

매년 5월이면 운영되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의 ‘추모의 글 남기고, 추모 리본 달아주세요’ 행사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돼 어느덧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유족회와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 앞 천막을 지키며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받아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열사들의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그 숭고한 뜻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나누자는 취지다. 올해 천막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된다.

하루 평균 100여개, 5·18 기념일 주간에 들어서는 300~400개의 추모 리본이 달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리본들은 어느새 묘지 일대를 빼곡히 메우게 됐다. 수많은 이들의 사연과 감정을 품어낸 리본의 물결은 이제 이곳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면서도, 묵묵한 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걸려있는 리본은 5월이 지나면 수거돼, 유족회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관한다.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2·3 계엄사태와 함께 오월정신이 다시 부각되면서, 추모글의 내용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당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와 같은 경건한 다짐부터, ’너무 늦게 왔다’, ‘잘 모르고 있어 미안하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 ‘Hope, Peace, Perseverance(희망, 평화, 인내)’ 등 외국어로 남긴 메시지까지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단단히 묶인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은미(26)씨는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지만, 윗세대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당시 오월 열사들이 느꼈을 고통과 결연한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음을 기억하고, 광주시민으로서 그들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귀띔했다.

추모글 작성을 돕거나 리본을 정리하는 등,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

김예림(광주여대 1년)씨는 “지난 탄핵 정국 동안 촛불 시민들의 원동력이 된 영령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벌써 2번째로 봉사를 하게 됐다”며 “직접 묘지에 와서 시민들이 남긴 글을 정리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바래는 참배객들의 추모글귀를 보존하고자 과거 책자를 펴내기도 하는 등 기록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추모리본 행사를 5월 연례행사로 이어가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어느덧 20년째 이어온 추모리본 행사는 5·18 당사자와 유족뿐 아니라 묘역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며 “참배객들의 진심이 담긴 추모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일 주간을 맞아 지역 내 추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누적 2만2676명의 참배객이 민주묘지를 찾았으며, 월요일인 12일에는 하루에만 1만15명이 방문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시민사회, ‘광주시민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수용’ 촉구

광주비상행동, 국립5·18민주묘지서 기자회견

광주시민사회(광주비상행동, 45주년 5·18 행사위원회, 오월정신지키기시도민대책위)는 13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협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광주시민과의 정치 협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나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대전환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후보는 광장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광주비상행동은 50대 사회대개혁안을 만들어 ‘광주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

단체는 “이 후보가 직접 정치 협약에 나섬으로써 광주시민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광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전국의 투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의 사명은 내란 이전부터 이미 지옥 상태였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승자독식 경쟁체제를 타파하고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를 끝내자”고 주장했다. **정승우 기자**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 15명 대상 고소장 제출

“진상규명 신속히 이뤄져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전남경찰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시민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확보를 고소의 주된 이유로 밝혔다.

고소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등 정부 관계자 △제주항공 사장 및 안전·정비 책임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기수를 180도 꺾은 동체착륙 경위 △관제대응의 적절성 △엔진 유지관리 상태 △활주로 구조물 관리 여부 △블랙박스 기록 중단 이후 동력 비행 정황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 김다혜 씨는 “참사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절차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무료 세차해드려요” 믿고 맡겼다 차량 도난… 광주서 중고거래 사기

경찰, 게시자 추적 중

광주광역시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세차’ 게시글을 믿고 차량을 맡겼다가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 소유의 벤츠 E클래스 승용차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거래 후 리뷰를 남기면 무료 세차를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차량 세차를 맡겼으며, 주차장에 차키를 둔 채 차량을 세워뒀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를 요청해 수색에 나섰고, 해당 차량이 광주 외 지역으로 탁송 중이던 상황에서 회수에 성공했다.

탁송 기사 5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를 받고 차량을 운반했을 뿐 범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차량 도난을 지시한 최초 게시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광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29일 파업 초읽기

임금 8.2% 인상·정년 연장 요구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오는 29일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정이 무산될 경우, 시내버스 1041대가 멈추는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사측과의 6차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월급 8.2% 인상과 정년 연장(61세→65세)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웠으나, 사측은 “다른 지역 교섭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돌입이 가능하다.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이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원은 약 2600여명 중 1500여명으로, 대부분이 시내버스 기사로 구성돼 있다. **정유철 기자**